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텍스트, 즉 본문을 보완하는 텍스트를 가리키는 용어 ‘파라텍스트’는 제라르 주네트의 『문턱(Seuils)』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에 의하면 제목, 저자 이름, 장르 표시, 서문, 발문, 각주 등은 모두 파라텍스트에 해당한다. 주네트는 파라텍스트가 없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라텍스트의 방식과 수단은 시대, 문화, 장르, 작가, 작품, 편집 등 다양한 외현적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한다. 주목할 것은 결국 독자층에 있어 독서 행위의 유용성이 파라텍스트를 구성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사실이다.

소설 독자들에게 독서의 편의성을 제목으로 제공하고자 했던 시도는 오늘날의 문학에서뿐 아니라 서양의 근대문학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파라텍스트가 독서 행위에 친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한 기호학적인 지시사항의 사전 배치였다면, 오늘날의 파라텍스트는 사전 독서 경험에 친숙한 독자들의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귀환한 제목의 장문(長文)화 경향은 일본의 라노벨(ライトノベル)에서 발견된다. 일본의 라노벨은 온전히 서브컬처 영역에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장문화 경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문화 경향은 작품의 줄거리를 곧바로 제목으로 활용하거나, 특정한 설정의 요소를 바탕으로 특정 작품에서 형성된 설정과 밈을 그대로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특정 장르의 표면적인 요소 혹은 그에 따른 독자의 인지적 관습을 활용하여 작품에 대한 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라노벨 특유의 장르화 현상은 작가가 일본 서브컬처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순히 독자의 텍스트 진입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장르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유희를 가능하게 해준다. 제목은 서브컬처 영역에서 발생한 장르적 ‘밈’의 연속이며, 그러한 밈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특정 서브컬처 이해의 깊이를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독자를 유혹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네트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파라텍스트를 동반한다.
- ② 제목 기능의 변화는 외현적 조건에 따른 파라텍스트 방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 ③ 오늘날의 장문형 제목 설정은 특정 문화 이해의 깊이를 보여 준다.
- ④ 제목을 통한 편의성 제공은 동양 문학만의 특징이다.
- ⑤ 파라텍스트에는 장르 표시, 각주 등이 포함된다.

2. 다음은 한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이를 파라텍스트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활동기록		
제목	저자	분류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찰스 다윈	과학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후시미 츠카사	라노벨
나의 투쟁	아돌프 히틀러	사회
청춘 패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카모시다 하지메	라노벨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무리! (*무리가 아니었다?)	미카미 테렌	라노벨

- ① 주네트에 의하면 제목 ‘나의 투쟁’은 주텍스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겠군.
- ②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무리! (*무리가 아니었다?)’는 라노벨 특유의 장르화 현상의 예시겠군.
- ③ 찰스 다윈의 저서는 특정 장르의 인지적 관습을 활용한 제목을 통해 작품에 대한 기호적 신호를 보내는군.
- ④ 카모시다 하지메의 저서는 제목을 통해 독자의 추가적 유희를 가능하게 하겠군.
- 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는 다소 극단적인 장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 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A]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6.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	㉢
본계약상 급부	㉣	식사 제공

- | | ㉡ | ㉢ | ㉣ |
|---|----------|-------------|----------|
| ①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이흥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잊음을 논함 -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잊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 :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잊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자기 소개는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참새를 집을 때 할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 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본 것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 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쇠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열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쟁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러 드는 내 발바닥에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김 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던 것이다.

“사랑하구 말구요.” 나는 갑자기 의기 양양해져서 대답했다. 추억이란 그것이 슬픈 것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기 양양하게 한다. 슬픈 추억일 때는 고즈넉

이 의기 양양해지고 기쁜 추억일 때는 소란스럽게 의기 양양 해진다.

(중략)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냐 하세요.”하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사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시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시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시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 했으니깐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시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어다 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그러나 두부장수는 당장 받아가지고 가고도 싶거니와 더욱이 바깥어른이라는 말에 또 무슨 시비가 생길까 겁이 나서 당장만 내라고 조른다. 못한다거니 내라거니 하는 것을 다행히 아랫방의 목수가 들어오다 보고 자기 주머니에서 십 전을 꺼내

주어 두부장수를 돌려보냈다.

영주는 회초리를 댕 개나 꺾어가지고 들어왔다.

종태는 회초리를 보더니 지레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운다.

“그래 종석이놈은 어데루 갔느냐?”

“몰라 도망갔어.”

영주는 아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활썬 벗겨놓고 피가 흐르도록 잔채질을 했다.

그는 종태는 종석이가 두부를 훔쳐 주니까 그저 철모르고 받아먹었으리라고 짐작은 하면서, 그러나 자기 분에 못이겨 그것을 매로써 아이에게 푸는 것이다.

그런지라 만일 종석이라도 같이 붙들려왔었다면 종태는 그다지 맞지 아니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이가 너무 자지라지게 울고 하니까 매질이 과한 줄 알고 문간방 색시와 또 아랫방의 목수네 어머니가 들어와 매를 빼앗고 아이를 데려 내가고 하며 말했다.

영주는 말리는 대로 내맡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울면서 남편이 들어오면 실컷 말이나 해주고 죽어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

오직 부모 된 것들이 못났으면 자식이 도적질을 하랴. 도적질도 다른 도적질이 아니요 배가 고파 남의 두부목판에서 두부 한 모를 훔쳐먹으랴--하는 부끄럼과 노염이 영주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까지 나게 한것이다.

훔썬 저녁때가 되어 종석이는 찰래찰래 들어왔다.

영주는 자식을 나무라고 때리기보다는 그때는 자책하는 마음이 더했으나 종석이가 눈앞에 보이고 또 제가 그렇게 훔쳐는 놓고 동생을 내버리고 도망을 간 소행머리가 미워서 일단 가라앉았던 분이 다시 치밀어 종태만 못지 아니하게 매질을 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 아이의 등과 불기짜에서 피가 흐르고 하는 차에 얼큰히 취한 범수가 돌아온 것이다.

영주는 매를 늦추고 나무람을 하는 판인데 남편이 대뜰로 올라서는 것을 보니 그대로 펍 엎드려 헉헉 느끼며 울었다.

“웬일야?”

범수는 대뜰에 선 채 이렇게 물었으나 안해는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원망스럽게 한번 치어다보고는 도로 엎드려 울기만 한다.

영주는 폭포같이 말을 쏟뜨려놓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만 남편이 원망스럽고 노여워 울음이 앞을 서는 것이다.

“너, 요놈 또 어머니 말 아니 듣구 싸웠든지 그랬구나?” 하고 나무람 반 물었으나 아이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자 안해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범수를 치올려보며 “무슨 낮으루 자식을 나무래요? 다 에미애비 죄지.” 하고 악을 쓴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자식을 굶겨노니 안 그럴까?”

“아니 글썬 왜 그러는 거야. 굶는 게 오늘 처음이요, 또 우리뿐이게 새삼스럽게 이리나?”

“그러니까 자식이 도적질을 해두 괜찮단 말이요?”

“도적질?”

“그렇다우…… 배가 고파서 두부장수 두부를 훔쳐먹다가 들켰다우.자, 시언허우.”

범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밀어올랐다.

그는 무어라고 아이를 나무래려다가 문득 자기가 오늘 낮에 겪던 일이 선연히 눈앞에 나타나 그만 두 어깨가 축 처져버렸다.

그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흥! 이놈의 자식 승어부(勝於父)는 했구나.”

하고 두런거렸다. 영주도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의 사립학교에나마 보낸다고 데리고 나섰다.

종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 늦게까지 우기며 다투었으나 범수는 듣지 아니하고 정 그러려든 작은아이 종태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산을 둘이서 반분한 셈이다.

종태를 데리고 나가는 안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두구 보자--네 방침이 옳은지 내 방침이 옳은지. --” 뒤미처 범수는 종석이를 데리고 서비스 공장으로 최씨를 찾아갔다.

사흘만에 크고 작은 동장네 개들은 전후해서 들어왔다. 간난이네 개도 들어왔다. 개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늘을 찾아 엎디더니 침이 질질 흐르는 혀를 빼 가지고 혈떡이다가 눈을 감고 잠이 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새에 한결 파리해진 것 같았다.

크고 작은 동장은 그 날도 새로 작담한 논의 모넨 구경을 나갔다가 일부러 알리러 나온 절가와 간난이 할아버지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간난이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검둥이게로 갔다. 큰 동장이랑 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 늙은이가 저러다 큰일 날려고! 하는 마음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검둥이가 졸린 듯 눈을 다시 감으며 반갑다는 표시로 꼬리를 움직여 비마냥 땅을 몇 번 쓸었다.

간난이 할아버지가, 무엇이 이 개가 미쳤다고 그러느냐고 큰 동장 편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큰 동장은 아직 미쳐 나가게 되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라고 하면서, 눈을 못 뜨고 침을 흘리는 것만 봐도 미쳐 가는 게 분명하니 아주 미쳐 나가기 전에 잡아 치우자고 했다.

절가가 미친개는 밥을 안 먹는다는데 어디 한 번 주어 보자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물에다 말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검둥이는 자기 앞에 놔주는 밥을 무슨 냄새나 맡듯이 주둥이를 갖다 댔는가 하자 곧 도로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이었다. 큰 동장은, 자 보라고 했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검둥이가 저러는 것은 며칠 동안 수캐 구실을 하고 돌아온 탓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큰 동장은 펄쩍 뛰며, 그 미친가이하구? 그럼 더구나 안 된다고 어서 올라미를 씌우라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큰 동장은 혼잣말처럼, 마침 초복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복놀이 겸 잘됐다고 했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었다. 이미 개 목에 끼울 울가미까지 만들어 가지고 섰는 절가의 손에서 밧줄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둥이의 목에 씌우고 말았다. 밧줄 한 끝은 절가가 잡고 있었다. 절가는 재빠르게 목을 켜 검둥이를 대문꺼로 끌고 가더니 밧줄을 대문턱 밑으로 뽑아 가지고 잡아 죄었다. 뜻 않았던 일을 당한 검둥이는 아무리 깨개 소리를 지르며 버두룩거리도 쓸 데 없었다. 검둥이의 깨개 소리를 듣고 작은 동장네 바둑이는 바라다보는 곳까지 와서, 서쪽 산 밑 개들은 한길까지 나와서 짖어 댔다. 그러는 동안 검둥이의 눈에 파란 불이 일고 발톱은 소용없이 땅바닥이며 대문턱을 마지막으로 활쫓고 있었다. 큰 동장은 개 잡을 적마다 늘 보는 일이건만 오늘 검둥이의 눈에 켜진 불은 별나게 파랗다고 하며 아무래도 미쳐 가는 개가 분명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였다. 검둥이는 똥을 갈기고 그리고는 온 몸에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지고 말았다.

작은 동장네 집으로 갔다. 바둑이는 벌써 자기가 당할 일을 알아차린 듯 안뜰로 피해 들어가 슬슬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다. 그래 목에 울가미를 씌우는 데도 손이 걸렸다. 그리고 절가는 더 날쌔게 밧줄을 잡아당겨야 했다. 이렇게 해서 바둑이도 죽고 말았다.

뒤꼍 밤나무 밑에다 큰 동장네 큰 가마솥을 내다걸었다. 개 튀길 물을 끓여야 했다. 그러는데 큰 동장과 작은 동장이 무슨 의논을 하는 듯하더니 절가더러, 북쪽 목 너머에 있는 권돌 마을의 동장과 박 초시를 모셔 오라는 것이였다.

두 마리의 개가 토장국 속에서 끓어날 즈음, 오른팔을 포마드 로 진득이 채워 붙인 권돌 동장과 잠자리 날개같이 모시고의 적삼에 감투를 쓴 똥똥이 박 초시가, 이 곳 동장네 절가 어깨에다 소주 두 되를 지워 가지고 왔다. 곧 술좌석이 벌어졌다. 먼저 익었을 내장부터 꺼내 술안주를 했다. 술이 두어 순배 돌자 큰 동장이 먼저 저고리를 벗어 젖히며, "자 옷통들 벗읍세, 그리고 우리 놀민놀민 한 번 해 보세." 했다. 큰 동장이나 작은 동장은 지금 자기네가 먹는 개고기가 미쳐 가는 개의 고기란 걸 말 않기로 했다.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의 식욕을 덜든지 하면 재미없는 일이니.

"초복 놀이 미리 잘 하눈."

하고 권돌 동장이 옷통을 벗었다. 작은 동장도 따라 벗었다.

박 초시만은 모시 적삼을 입은 채였다. 여태까지 아무런 술좌석에서도 옷통을 벗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처럼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 해도 출입할 때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온 건만 해도 예의에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는 박 초시인지라, 그보고는 누가 더 옷통을 벗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복날엔 우리 동리서 한 번 해 보디?"

하며 권돌 동장이, 그 때는 한몫 열려야 하네 하는 뜻인 듯 박 초시를 쳐다보니 박 초시도 좋다는 듯이 고개를 한 번 끄덕여 보였다. 권돌 동장이 그냥 박 초시를 쳐다보며, "왜 길손이네 가이 있다 않아? 걸 팔갔다데, 요새 길손이 채독 땀에 한 창 돈이 물리는 판이라 늑계 살 수 있을 거야, 개가 먹을 걸 먹디 못해 되기 말랐디만 그 대신 틀이 커서 팬티않아." 했다. 박 초시는 권돌 동장의 말이 다 옳다는 듯이 다시 한 번 감투 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개 앞다리의 살이 상에 올랐다. 뒷다리의 살이 상에 올랐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술안주를 당해 내느라 분주히 고기를 뜯어야 했다. 그러는 새 저녁이 빠른 이 곳에 어느덧 지나간 첫여름날의 저녁 그

늘이 것들기 시작하였고, 술좌석에서는 한 되의 술이 아가리를 벌리고 자빠지자 이어 새 병이 들어와 앉았다. 모두 웬만큼씩 취했다.

큰 동장도 이제는 취한 기분에 오늘 잡은 개는 사실은 미친개였다는 말과 미친개 고기는 보약이 되는 것이니 마음 놓고들 먹으라는 말쯤 하게 댔다. 그러면 권돌 동장은 또 맞받아, 보약이 되답 뿐인가, 이 가이고기가 별나게 맛이 있다 했더니 그래서 그랬군, 우리 배꼽이 한번 새빨개 디두룩 먹어 보세, 하고 이런 때의 한 버릇인 허리띠를 풀어 배꼽을 드러내놓기까지 하는 것이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체언이다. 대명사에는 지시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가 있다. 지시 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 등과 같이 사물을 가리키는 것과 ‘여기, 거기, 저기’ 등과 같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있으며,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등으로 나뉜다.

대명사 ‘우리’는 기본적으로 1인칭의 복수이지만, 화자 자신만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우리 아버지에 게도 맞은 적 없는데!’에서의 ‘우리’는 화자 자신만을 지칭하는 예이다. 한편 ‘자기’는 명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야.’에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대명사와 혼동을 일으키는 명사 역시 주의해야 한다. ‘그날’, ‘이때’ 등의 단어는 명사로만 쓰인다.

대명사에는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미지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부정칭,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재귀칭 등도 있다. ‘무엇, 누구, 어디’와 같은 대명사는 주로 의문문에서 미지칭으로 쓰이고,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든’에서와 같이 부정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미지칭은 ‘(이)나’나 ‘도’와 같은 보조사가 결합하게 되면 부정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 누구도 상처 받지 않는 세계의 완성이다.’의 ‘누구도’가 그 예이다. 재귀 대명사라고도 하는 재귀칭에는 ‘저, 자기, 당신’ 등이 있는데, 주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

35.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이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 ② ㉠: 왕이란! 누구보다 강렬하게 살고 모든 이를 매혹 시키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 ③ ㉡: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 ④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⑤ ㉢: 중2병이란 자기 보호의 말로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세상 어디에 있는지 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찾아가겠다고.
 ㉡ 소중한 사람,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야...? 너의 이름은...!
 ㉢ 그날, 별이 무수히 쏟아지던 날, 그것은 마치 꿈 속 풍경처럼, 그저 한없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 그 녀석은 늘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
 ㉤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 ① ㉠: ‘어디’는 정해지지 않은 장소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 ② ㉡: ‘누구’는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에 해당하지만 ‘너’는 미지칭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③ ㉢: ‘그날’과 ‘그것’은 모두 지시 대명사로 쓰였다.
- ④ ㉣: ‘저’는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낸다.
- ⑤ ㉤: ‘우리’는 1인칭 대명사 ‘우리’가 복수를 지칭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의 예시이다.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 ㉡없고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란 길
 기적이란 기적은 꼭 끌어모아
 난 너를 만나게 됐어

㉣과랑던 봄은 언젠가 막을 내리고
 ㉤벚꽃과 함께 흩날려버린대도
 우리 둘은 반드시 세상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 ① ㉠과 ㉡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음운 변동의 조건은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것이다.
- ② ㉠과 ㉢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다.
- ③ ㉡과 ㉤은 모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 ④ ㉠의 음운 변동 전의 음운의 개수와 ㉢의 음운 변동 후 음운 개수는 같다.
- ⑤ ㉣은 ㉤, ㉤과 달리 받침이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38. <보기>에 제시된 ㉠~㉤의 단어 형성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비눗방울처럼 ㉡아름답고 덧없는 사내어...
- 재능은 ㉢꽃피우는 것, 센스는 ㉣갈고닦는 것.
- ㉤어린이의 몸, 최고!

- ① ㉠: '명사+명사'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 자립성이 없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③ ㉢: '명사+용언의 어간'으로 구성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으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 '용언의 관형사형+명사'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39. <보기>의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ㄱ. 몸은 검으로 되어 있다.
 ㄴ.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체펠리의 혼이다!
 ㄷ. 너처럼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어

- ① ㄱ의 주어는 '몸'이고, 보어는 '검'이다.
- ② ㄴ의 안은문장의 목적어는 안긴문장의 꾸밈을 받고 있다.
- ③ ㄴ의 안긴문장 속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존재한다.
- ④ ㄷ의 서술어는 ㄱ과 달리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⑤ ㄷ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40~43] (가)는 학생들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에 대한 학생회의 이메일 답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모이
예산을 타먹기 위한 게임 기획 회의를 시작해보자
어떤 컨셉으로 하는게 날로먹을까?

미도리
수험생 키우기가 유행이라니까 뭔가 키우는 게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리스
아리스는 용사 키우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즈
음... 하지만 용사 키우기는 이미 있는걸...

아리스
그렇습니까

모모이
뭔가 만만한거 없을까?

아리스
아리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키우기는 어떻습니까?!

미도리
오오 좋네.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해보자

모모이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선생님이 깨어나는 걸로 시작하자

미도리
이미 써먹었어 그거

아리스
아리스는 찬성입니다!

모모이
뭐어 그럼 그렇게 할까... 선생님은 그 뭐지 식물인간이니까 먹이는 풀같은 걸로 하자

아리스
아리스는 용사에게 어울리는 히로인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도리
그거 이미 키우기가 아니라 미연시잖아

유즈
유우카 집어넣으면 재밌을 거 같긴 해...

모모이
키우기 유행을 역이용해서 유우카 살빼기 게임 같은 건 어때?

유즈
아마 예산은 절대 못탈텐데

아리스
아리스는 현실 요소를 넣으면 예산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도리
그럼 엔지니어부한테 서버 빌려서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자

유즈
저번에 만든 asmr을 효과음으로 넣으면 잘팔리지 않을까?

모모이
그러면 선생님 키우기랑 유우카 살빼기를 섞어서 만드는거야?

아리스
아리스는 좋습니다!

(나)

제목 RE:게임 기획 검토해주세요
수신자:게임개발부장

-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 학생회 세미나 회계 하야세 유우카와 살레 소속 선생님에 대한 게임 기획은 재고 바랍니다.
가. ㉡게임 시작 시 몸무게 100kg을 보다 현실적인 수치로 수정 바랍니다.
나. 선생님에 대한 표현 '식물인간'을 검토한 결과, ㉢ '초식남'과 같은 표현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4(목) 내에 특별한 성과가 없다면 귀부 예산을 90% 삭감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획서 검토안 1부. 끝.

인쇄

← 답장 → 전달 😊 📄 📧

4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 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은 의존명사 '시'를 활용해 유우카의 몸무게가 100kg으로 나타나는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 ㉢은 독립어 '보다'를 활용해 수정의 방향을 알리고 있다.
- ㉣은 명사형 전성어미를 활용해 객체 높임을 표현한다.
- ㉣은 명령형 어미를 활용해 강제의 뜻을 나타낸다.

42. (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등록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는 글과 음성이 함께 사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의 복합 양식적인 매체 향유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나)는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한정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댓글 쓰기를 통해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는 생산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공감하기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의 공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들 간에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